

#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연구

김서연\*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 Convergence Study on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in Their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Decision Attitude

Seo-Yeon Kim \*  
Dept. of Dental Hygiene, Songwo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태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라도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321명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세부 진로결정태도 평균은 진로준비행동  $3.23 \pm 0.63$ , 진로성숙도  $2.56 \pm 0.62$ , 진로결정수준  $2.64 \pm 0.75$ 로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세부 진로결정태도 중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학년, 평소 스트레스이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완화 및 진로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키워드** :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tress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attitude of dental hygiene students. From April 20, 2016 to May 11, 2016, 321 dental hygienists were enrolled in of colleges in Gwangju and Jeollanam-do. In detailed averages of career decision attitude on usual stres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3.23 \pm 0.63$ , career maturity was  $2.56 \pm 0.62$  and career decision was  $2.64 \pm 0.75$ . Average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was highest. Factors influencing major satisfaction were career matur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grade, and usual stress in details of career decision attitu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ase the data on stress reduction and development of career program.

**Key Words** : Stress,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decision attitude

### 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독립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성인 생활을 준비해야 시기이지만, 중·고등학교에서의 수동적인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자율적인 주도적인 대학생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1]. 2010년 8월

31일 매일경제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 2명 중 1명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특히,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진로스트레스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로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이 되고 있다[2]. 사회에 첫 출발을 내딛는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춰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

대[3].

그러므로 대학생들의 성공적인 직업세계 입문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취업에 필요한 진로탐색을 통하여 진로의 사결정이나 직무적응을 위해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자신이 속한 전공학과로부터 제공 받는 요소에 따라 전공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취업이나 취업 후 정착을 위해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4].

윤미숙과 정효정 논문[5]에 의하면 치위생학과 학생들의 생활스트레스 요인 중에서 학업문제가 가장 높다고 하였고, 기존의 선행논문인 [5-8] 의하면 일반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치위생과 대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극복력이 낮았으며 이는 의학계열과 보건계열의 학생인 경우 국가고시, 임상실습, 교육과정, 과도한 과제 등 엄격한 교육환경의 분위기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으나[9-11]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전공만족도 및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으로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태도와 관계를 파악하여 교육방향과 스트레스 완화 및 진로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라도와 광주광역시 지역의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법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수집에 총 330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작성이 미비하거나 설문응답이 누락된 항목이 있는 미흡한 9부를 제외한 321부(96.4%)를 연구 자료로 분석하였다.

### 2.2 연구변수

본 연구의 설문 구성은 일반적인 특성 4문항, 평소 일

상생활 중 스트레스 1문항,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 항목 20문항, 전공만족도 22문항(교과만족 6문항, 관계만족 5문항, 일반만족 5문항, 인식만족 6문항), 진로결정태도 12문항(진로준비행동 5문항, 진로성숙도 5문항, 진로결정수준 2문항)이었고, 1점은 매우 그렇지않다에서 5점은 매우 그렇다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연구도구에 사용된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 항목 20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0.883, 전공만족도 22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0.948, 진로결정태도 12문항의 신뢰도 Cronbach  $\alpha$ 는 0.777로 나타나 측정도구는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다.

### 2.3 분석방법

연구 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은 SPSS windows ver. 18.0 (SPSS Inc., Chicago, USA)이었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이었다. 분석기법으로는 일반적 특성과 평소 스트레스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시행하였고,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시행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태도와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태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사후분석으로 Scheffe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평소 스트레스,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태도 상관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시행하였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다.

## 3. 조사결과 및 분석

###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태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태도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은 학년의 경우 1학년군은 34.9%, 2학년군은 30.5%, 3학년은 20.2%, 4학년군은 4.3%로 1학년군이 가장 많았다. 최근 1년간 음주여부는 예라고 대답한 군은 90.3%, 아니오라고 대답한 군은 9.7%이었고, 평소 1주일에 3일 이상 운동여부는 예라고 대답한 군은 23.4%, 아니오라고 대답한 군

은 76.6%이었다. 평소 수면시간은 6-8시간군이 70.1%로 가장 많았다.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는  $3.05 \pm 0.50$ 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만족도 평균점수는  $2.73 \pm 0.51$ 이었으며, 학년, 최근 1년 음주여부, 평소 수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5$ ). 학년의 경우 1학년의 전공 만족도가 가장 낮고, 4학년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1$ ).

평소 수면시간의 경우 6-8시간군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낮고, 9시간 이상군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5$ ).

최근1년 음주여부는 예라고 대답한 군은 아니오라고 대답한 군보다 전공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p < 0.01$ ).

평소 1주일에 3일 이상 운동여부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진로결정태도 평균점수는  $2.85 \pm 0.43$ 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태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2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전공만족도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Table 2와 같다. 세부 전공만족도 평균은 교과만족  $2.78 \pm 0.56$ , 관계만족  $2.81 \pm 0.57$ , 일반만족  $2.75 \pm 0.63$ , 인식만족  $2.61 \pm 0.65$ 으로 인식만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전공만족도 전체 평균은  $2.73 \pm 0.51$ 이었다. 일반만족의 경우 느끼지않는다라고 대답한 군이  $2.85 \pm 0.69$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 < 0.01$ ).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교과만족, 관계만족, 인식만족, 전공만족도 전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3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진로결정태도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진로결정태도는 Table 3과 같다. 세부 진로결정태도 평균은 진로준비행동  $3.23 \pm 0.63$ , 진로성숙도  $2.56 \pm 0.62$ , 진로결정수준  $2.64 \pm 0.75$ 로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태도 전체 평균은  $2.85 \pm 0.43$ 이었다.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진로결정태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3.4 평소 스트레스,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태도 상관성

평소 스트레스,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 전공만족도, 진로결정태도의 상관성은 Table 4와 같다. 평소 스트레스와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 < 0.01$ ), 전공만족도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는 진로결정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p < 0.05$ )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태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

### 3.5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F값이 36.169, 유의확률은  $0.000$ ( $p < 0.0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세부 진로결정태도 중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학년, 평소 스트레스이었다.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p < 0.001$ ), 학년이 높아질수록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p < 0.05$ ). 평소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p < 0.05$ ), 모형의 설명력은 30.7%이었다.

Table 1. The Stress in Last One Month, Satisfaction with Major and Career Decision Attitude under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N(%)	The stress in last one month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decision attitude	
		M±SD	P	M±SD	P	M±SD	P
Total	321(100)	3.05±0.50		2.73±0.51		2.85±0.43	
Grade							
1	112(34.9)	3.11±0.50	0.287	2.62±0.46 <sup>a</sup>	0.004 <sup>**</sup>	2.81±0.43	0.503
2	98(30.5)	3.06±0.57		2.72±0.51 <sup>ab</sup>		2.90±0.44	
3	65(20.2)	2.99±0.37		2.82±0.44 <sup>ab</sup>		2.88±0.38	
4	46(14.3)	2.97±0.48		2.92±0.65 <sup>b</sup>		2.82±0.47	
Alcohol use in one year							
Yes	288(90.3)	3.06±0.50	0.401	2.71±0.52	0.004 <sup>**</sup>	2.85±0.44	0.508
No	31(9.7)	2.98±0.50		2.92±0.33		2.90±0.35	
Exercise more than 3 times in a week							
Yes	75(23.4)	3.06±0.53	0.921	2.76±0.59	0.573	2.86±0.48	0.864
No	246(76.6)	3.05±0.49		2.72±0.48		2.85±0.41	
Sleeping hours							
≤5hours	69(21.5)	3.04±0.61	0.972	2.75±0.53 <sup>ab</sup>	0.039 <sup>*</sup>	2.84±0.43	0.238
6-8 hours	225(70.1)	3.06±0.46		2.70±0.47 <sup>a</sup>		2.84±0.42	
≥9hours	27(8.4)	3.05±0.53		2.96±0.68 <sup>b</sup>		2.99±0.52	

<sup>ab</sup>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ata were analysed by t-test and one-way ANOVA, \* p<0.05, \*\* p<0.01.

Table 2. Satisfaction with Major under Usual Stress

Variable	N(%)	Curriculum satisfac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General satisfaction		Recognition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major total	
		M±SD	P	M±SD	P	M±SD	P	M±SD	P	M±SD	P
Total	321(100)	2.78±0.56		2.81±0.57		2.75±0.63		2.61±0.65		2.73±0.51	
Do not feel	123(38.3)	2.83±0.64	0.099	2.88±0.62	0.108	2.85±0.69 <sup>a</sup>	0.008 <sup>*</sup>	2.62±0.70	0.756	2.79±0.56	0.078
Normal	143(44.5)	2.80±0.44		2.79±0.50		2.75±0.50 <sup>ab</sup>		2.62±0.57		2.74±0.42	
More likely to feel	55(17.1)	2.64±0.61		2.69±0.58		2.53±0.71 <sup>b</sup>		2.55±0.75		2.60±0.58	

<sup>ab</sup> The same characte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 p<0.01.

Table 3. Career Decision Attitude under Usual Stress Usual Stress

Variabl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Career maturity		Career decision level		Career decision attitude total	
	M±SD	P	M±SD	P	M±SD	P	M±SD	P
Total	3.23±0.63		2.56±0.62		2.64±0.75		2.85±0.43	
Do not feel	3.26±0.61	0.097	2.61±0.65	0.198	2.54±0.79	0.133	2.87±0.45	0.070
Normal	3.28±0.66		2.56±0.57		2.72±0.70		2.89±0.40	
More likely to feel	3.07±.054		2.43±0.63		2.64±0.78		2.73±0.43	

The data were analysed by one-way ANOVA.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Usual Stress, Stress in One Month,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Decision Attitude

Variable	Usual stress	Stress in one month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decision attitude
Usual stress	1			
Stress in one month	0.270 <sup>**</sup>	1		
Satisfaction with major	-0.163 <sup>**</sup>	-0.055	1	
Career decision attitude	-0.097	0.136 <sup>*</sup>	0.458 <sup>**</sup>	1

\* p<0.05, \*\* p<0.01

Table 5.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with Major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td. Error	$\beta$		
Career maturity	0.366	0.039	0.444	9.319	0.000 <sup>***</su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0.167	0.038	0.206	4.344	0.000 <sup>***</sup>
Grade	0.075	0.023	0.154	3.245	0.001 <sup>**</sup>
Usual stress	-0.052	0.026	-0.093	-1.974	0.049 <sup>*</sup>
F= 36.169		Adjusted R <sup>2</sup> = 0.307			

\* p<0.05, \*\* p<0.01, \*\*\* p<0.001, Meaningless value statistically is not shown on the table(p>0.05).

#### 4. 논의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방향은 획일화된 대학입시에 맞춰 있고, 수동적인 분위기 속에 본인의 적성에 맞게 학과를 선택하기 보다는 취업의 안정성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 또한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환경의 변화, 학점관리, 인간관계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12-14].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학생 대상으로 본인의 스트레스 파악하고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를 학년 별로 볼 경우 1학년이 34.9% 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의 전공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반면에 4학년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박경화과 최혜경[15] 연구결과 의하면 1

학년의 전공만족도가 3.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본 연구와는 반대의 결과이더라도 하지만 정기옥, 최규일, 배지영 [16]의 연구결과에서는 전공만족도가 3.55로 1학년이 가장 높다고 보고한 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학교간의 교육과정에 따라 학년별 전공만족도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후속연구에는 비보건계 열같은 타학과의 학년별로 비교분석과 적성에 맞춰 온 학생들과의 포괄적인 연구도 함께 연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전공만족도를 살펴보면 평상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이 전공만족도 전체평균이 2.60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향후 학생들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상담기법이나 상담활동을 다양화시켜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야 할 것이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정선영 등[17] 논문에 의하면 힐링요가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을때 긍정적 변화를 보였고, 자기 신뢰에서 많은 증가를 보였으며 우울 수면장애 요인에서 스트레스가 어느정도는 감소 되었다고 보고한바 치위생학과를 포함한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인 힐링요가나 선후배의 멘토링제도 및 명상 프로그램등을 실시하여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후속 연구에 보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부 만족도인 일반만족의 항목에서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과 느끼지 않는 학생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0.01$ ). 이는 당연한 결과이지만 학생들에게 전공의 흥미와 가치를 높여준다면 평소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세부 진로결정태도 평균은 진로준비행동  $3.23\pm 0.6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김호원, 이종구, 김홍유[18] 연구에 의하면 대학에서 실시하는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이 평균 20%도 되지 않는다. 짧은 대학시기에 가능한 진로를 살펴봐야 되고 자신에 맞는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스트레스는 학교나 학과에서 진로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진로준비와 함께 정보수집활동으로 이어졌지만 학생 스스로 해야 하는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한 일들인 진로결정태도는 낮다고 볼 수 있다[19,20]. 향후 진로의 준비에서만 그치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 결정하는 태도를 이끌어 줘야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태도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1$ ). 박신행과 이동형[21]의 연구에 의하면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간에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고, 한예정과 이종호[4]의 연구에서도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태도에 유의한 차이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여 태도를 이끌어주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면 전공만족도는 당연히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세부 진로결정태도 중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으로 나타났다. 조현재[22] 연구에 의하면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 연구의 뒷받침을 하고 있다.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인 경우 중도에 학업을 중단할 수 있고 진로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전공만족도가 낮은 학생들을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려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면의 세계와 마주치게 해야 하며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곳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전공의 전문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정보제공이 필요하고 뚜렷한 진로 방향제시가 될 수 있는 워크샵이나 특별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와 일부지역에만 연구하였기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에는 제한이 따르고 치위생과와 치위생학과와 치위생과의 교육과정이 차이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치위생학과와 치위생과의 학생들의 비교 분석 및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허성은 [23] 연구에 보면 전공봉사활동을 참여율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학업성취율도 높았다는 융합연구와 같이 향후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 심리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을 포함한 깊이 있는 다학제적 접근으로 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라도

와 광주광역시 지역의 3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치위생학과 대상으로 평소의 스트레스, 스트레스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파악하고자 321명을 최종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최근 한 달 내 스트레스를 학년별로 볼 경우 1학년이 34.9%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의 전공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반면에 4학년의 전공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2.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세부 만족도인 일반만족에서 평소 스트레스를 느끼는 학생과 느끼지 않는 학생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p < 0.01$ ).
3. 평소 스트레스에 따른 세부 진로결정태도 평균은 진로준비행동  $3.23 \pm 0.63$ , 진로성숙도  $2.56 \pm 0.62$ , 진로결정수준  $2.64 \pm 0.75$ 로 진로준비행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결정태도 전체 평균은  $2.85 \pm 0.43$ 이었다.
4. 전공만족도는 진로결정태도와 높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p < 0.01$ ).
5.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세부 진로결정태도 중 진로성숙도와 진로준비행동, 학년, 평소 스트레스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때 일부 치위생학생으로 한정되었던 연구 대상자를 확대하여 스트레스가 전공만족도와 진로결정태도에 영향을 주는 확장요인을 파악해서 다학제적 접근으로 융합연구가 필요하며, 교육방향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진로방향제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2016년도 송원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 REFERENCES

- [1] L. J. Lee and H. K. Choi, *Human Behavior and Social Environment (2nd Edu)*, Nanam, 2008.
- [2] M. J. Kim and B. H. Kim, "The Effect of Anxiety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Decision Level,"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0, No. 1, pp. 13-25, 2007.
- [3] Y. R. Yoon, "The study on the career recogni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Education & Culture*, Vol. 13, No. 1, pp. 123-168, 2007.
- [4] Y. J. Han and J. H. Lee,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 *Korea Journal of culinary Reserch*, Vol. 19, No. 2, pp.76-92, Mar. 2013.
- [5] M. S. Yoon and H. J. Jung,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ress and Resilience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Dental Hygiene Science*, Vol. 16, No. 5, pp. 384-392, Sep. 2016.
- [6] J. Y. Park, *Stress, stress reponse and influencing factors on resilience among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Namwon, 2011.
- [7] H. K. Kim and M. H. Lee,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adult children of alcoholics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1, No. 5, pp. 642-651, Oct. 2011.
- [8] H. J. Lee,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75-83, Aug. 2016.
- [9] S. C. Jang, "An Analysis of type of university students career decision," *Journal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16, No. 3, pp. 533-551, 2004.
- [10] J. H. Kim, *The 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degree at major and the career decision scale of dance maj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 Myung University, seoul, 2004.
- [11] S. M. Park, *The Effects of Major-related Job-esteem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Hospitalit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level*,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jong University, seoul, 2011.
- [12] B. W. Kim, "The Relationship of Resili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Woman,"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rch*, Vol. 23, No. 4, pp. 93-111, Dec. 2010.
- [13] S. S. Hong and J. A. Hong and W. H. Jun, "Spirituality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3, No. 6, pp. 361-369, Jun. 2013.
- [14] D. L. Coffman and T. D. Giligan, "Social support

- ,stress and self-efficacy; Effects on student's satisfaction," *Journal of College Student Retention*, Vol. 4, No. 1, pp. 53-66, May. 2002.
- [15] K. H. Park and H. J. Choi, "Correlations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5, No. 2, pp. 279-86, Apr. 2015.
- [16] G. O. Jung and G. Y. Choi and J. Y. Bae, "Effect of satisfaction in major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in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Vol. 13, No. 1, pp. 61-8, Feb. 2013.
- [17] S. Y. Jeong, H. C. Kim, H. J. Kim and R. Park, "Effects of Healing Yoga Training for Old Women on Physical Ability and Stress Level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1-14, Jun. 2016.
- [18] H. W. Kim, J. G. Lee and H. Y. Kim, "The Study on Analyzing Operation Actual Condition of Organization of Career Center of Domestic Universities," *Journal of Productivity Review*, Vol. 25, No. 1, pp. 315-345, Mar. 2011.
- [19] S. H. Park and H. J. Park, "Coping as a Mediator between Career-related Str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6, No. 1, pp. 67-81, Jun. 2009.
- [20] S. J. Lee, "Analysis of Relations among Core Competency Career Indecision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rch*, Vol. 26, No. 1, pp. 119-139, Mar. 2013.
- [21] S. H. Park and D. H. Lee, "Moderating Effects of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the Relationship of Career Decision Level and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rch*, Vol. 32, No. 1, pp. 23-38, Mar. 2013.
- [22] H. J. Cho, "Difference and Impact of University Student' Personal Characteristics on Career Indecis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Vol. 33, No. 4, pp. 103-127, Aug. 2014.
- [23] S. E. Heo, "Convergence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Service Experience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4, pp. 85-96, Dec. 2016.

## 저 자 소 개

김 서 연(Seo-Yean Kim)

[종신회원]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보건학과 석사
- 2012년 8월 : 전남대학교 치의학과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송원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 구강병리학, 예방치학, 융합